

월드뷰

WORLDVIEW

03

MARCH · 2018

ISSN 2234-3865



중독에 빠진 그리스도인

COVER STORY

가정과 중독, 이단, 행복을 중심으로
정동섭 교수를 만나다

ISSUE

중독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알코올중독

게임 · 가상화폐 그리고 도박

스마트한 생활은 스마트한 믿음을 가져올까?

스마트미디어 중독 : 대학에 갈 때까지 2G(鬪志)폰으로 살아 내려

쇼핑중독? 그 어떤 파국적 습관에 대하여

중독에 대한 책갈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

기쁨병원 자체 개발한 ‘최소절개 무인공막 탈장수술법’으로 20분만에 집도



103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개원 이래부터 현재(2017. 05. 30)까지 탈장수술 **12,136**건 달성

기쁨병원은 국내최초로 탈장센터를 개설한 강윤식 원장이 통증과 재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을 개발하여 국내 지방이나 해외 22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탈장전문 외과병원입니다.



정확 완벽 따뜻
기쁨병원

www.gipumhospital.com

서울 강남구 도곡로 122
(뱅뱅사거리 위치)

02)570-1234

시대가 정독을 요구합니다

복음서 읽기를 위한 심층 안내서

마
태

마
가

누
가

요
한

복음서
편



복음서마다 기록 방식과 표현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마 5:3)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눅 6:20)로만 나온다. 만약 마태가 의도적으로 ‘심령이’를 첨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누가 ‘심령이’를 뺐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식의 정독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초기 기독교 세계로, 나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까지 인도해 준다.

오경준 지음 | A5변형 | 472면 | 18,000원 | 믿음의 글들 351

Contents

MARCH · 2018



COVER STORY

커버스토리

가정과 중독, 이단, 행복을 중심으로
정동섭 교수를 만나다

8

ISSUE

발행인의 글

그리스도인은 중독에서 자유로운가? | 김승욱 5

대표주간

이념 중독증 | 손봉호 19

기획칼럼

중독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 하재성 22

알코올 중독 | 조현섭 28

게임 · 가상화폐 그리고 도박 | 전영민 32

스마트한 생활은 스마트한 믿음을 가져올까? | 이형초 37

스마트미디어 중독

: 대학에 갈 때까지 2G(鬪志)폰으로 살아내라! | 권장희 42

쇼핑중독? 그 어떤 파국적 습관에 대하여 | 조성민 47

중독에 대한 책갈피 | 송인규 50



WORLD VIEW

2018년 3월호 | WORLDVIEW | 통권 213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월드뷰〉 구독신청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세상바로보기 문의 02-718-8004

WORLD VIEW



BOOK & CULTURE

칼럼

윤성진의 십자가

: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의 미학 | 심상용

59

딸의 편지 | 최충희

63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3) | 이우제

66

HUMOR

손봉호의 유머 모음

“남편 외도 국가별 해결방법”

18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발행인 김승욱 | 편집간사 곽우정 | 디자인 김이연 | 표지사진촬영 설창훈
인쇄 상지사 | 제작 (주) 세상바로보기 | 전화 02-718-8004
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 27길 5, 103호 (이촌동, 한강르네상스빌리지 A) 0437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편집위원	김정효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플러신학교 신약학 박사
	배성민	강동대 교수, 고려대 체육교육과 졸업, 고려대 스포츠심리학 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전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이경원	SICA(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학원)원장,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이상규	고신대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unio cum christo의 편집위원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정석	전 KBS PD,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편집간사	곽우정	월드뷰 편집간사



김승욱



손봉호



곽우정



김정효



김철홍



배성민



송인규



이경원



이상규



이승구



이우제



조영길



한정석

자문위원	강진구 (고신대) 김대인 (이화여대) 김의원 (총신대) 김지원 (백석대) 박동열 (서울대)
	박상은 (안양생병원)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양승훈 (VIEW) 이인용 (삼성전자)
	이재희 (가천대) 정희영 (총신대) 조성돈 (실천신대) 조성표(경북대) 최용준 (한동대)

그리스도인은 중독에서 자유로운가?



김승욱 교수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호의 표지인물에서는 기독교상담과 가정사역자로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살아온 정동섭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본 동역회의 상담학분과장도 역임하시고,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구원파에 들어갔다가 아내를 만났고 유명언의 통역비서까지 했지만, 구원파에서 탈퇴해서 구원파와 수십 회 법정싸움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종교중독자라고 명명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TEDS)에서 상담심리석사와 가정사역전공 Ph.D를 받고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18년간 교수를 역임하다가 지금은 한동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습니다. 갓피플몰에 그의 저

서 8권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가정사역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제자인 정인숙 (그린상담소 소장) 박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특집 주제는 ‘중독’을 다루었습니다. 전도해보면 술과 담배를 끊고 나서 교회에 다니겠다는 사람이 꽤 많고, 이를 못 끊어 차라리 가톨릭으로 가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초기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표상으로까지 강조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중독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집 기사로 “중독”을 다루



는 이유는 술과 마약 등 물질중독의 주요 주제 이외에도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행위중독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중독이나 쇼핑 중독 심지어 이념 중독 등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크리스천들에게서도 예외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 중독 등은 일부 중독자에게 한정된 문제였으나 행위중독은 헌신된 크리스천도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독 문제의 기독교적 조명을 위해서, 기독교상담학을 전공한 하재성(고신대) 교수로부터 중독의 신학적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중독문제에 가장 전통적인 유형인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

고, 현재 한국심리학회 회장인 총신대 재활중독학과의 조현섭 교수로부터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처방, 그리고 진단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교수는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중독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일을 했으며, 28년간 중독분야에 종사해 '중독의 대모'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는 행위중독의 영역인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영민(을지대)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도박이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거래나 최근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열풍을 볼 때 거의 도박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요즈음 많이 빠져있는 게임이 도박과 융합되어 게임머니가 도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도박중독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중독도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중독문제는 분야가 다양해서 여러 분들로 부터 글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 편의 글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중독분야입니다. 미디어 중독과 쇼핑중독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중독은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미디어중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형초(서울사이버대학, 성심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는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은 특히 유아기 아동들에게 스마트미디어가 얼마나 유해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송인규 (합신대, 은퇴)교수께서 추천하시는 다음의 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랄드 메이의 「중독과 은혜」, 마이클 쿠하의 「중독에 빠진 뇌」, 에드워드 웰치의 「중독의 성경적 이해」, 윌리엄 스트러더스의 「남자의 뇌: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허근의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안드류 도안의 「게임 중독의 심리 분석」의 여섯 권에 대해서 간단한 서평과 목차를 함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봉호 대표주간께서는 이념중독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물질이나 행위가 주는 쾌감에 사로잡혀서 해로운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념의 옳음에 대한 “거룩한” 확신 때문에 이념에도 중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념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독선적이 되기 때문에 이념중독은 다른 중독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을 보면 이념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 포트 등 공산독재자들이 수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기 까지 했으므로 그 해악은 매우 큼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독교인 가운데 이념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계도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보면 이념중독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가정과 중독, 이단, 행복을 중심으로
정동섭 교수를 만나다

정동섭 교수는 침례신학대학에서 18년간 가정생활과 상담심리학을 가르쳤으며 5년간 한동대학교 대학원, 캐나다 VIEW대학원에서 기독교적 상담과 대화기술을 강의한 가정사역자이며 상담심리학자이다. 1994년 가정사역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감독회원이기도 하다. 대학재학 중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미혹되어 8년간 교주 유병언의 통역비서 역할을 한 배경 때문에 이단전문가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고 옥환흠 목사의 인도로 회심하여 기독교상담학을 전공하기 전 주한영국대사, 미국대사, 정주영 회장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언) 상임위원이며,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가족치유, 마음치유> <크리스천 카운슬링> <크리스천 코칭> 등 50여권의 책을 번역한 심리학자이며, <자존감 세우기> <행복의 심리학> 등 20여권의 책을 저술한 긍정심리학자이다. 현재 가족관계연구소장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역에 진력하고 있다.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 담임) 협동목사로 있다. 신성회 독서상담실 대표로 있는 이영애 사모와의 사이에 두 아들과 두 명의 손녀를 두고 있다.

이 대담은 2018년 2월 19일 오전 안양에 있는 정동섭 교수의 가족관계연구소에서 이뤄졌다. 대담은 정 교수의 제자 정인숙 박사가 맡았다.

인터뷰 정인숙 박사 (그린상담소 소장)

정인숙 박사는 그린상담심리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정사역과 상담심리를 전공하였으며, 이화여대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습관여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의 수퍼바이저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외래교수이며 전문상담자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인숙: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사역자로 가정세미나도 인도하시고 이단전문가로 재판도 받으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는 여러 TV 화면에 나오셔서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도 보았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정동섭: 구정을 지내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중

독, 이단, 행복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에 대해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의 책을 보면 할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노름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신 것이 교수님께 미친 영향을 말씀해주세요.

정동섭: 저는 충청북도 음성의 산골 벽촌에서 어린



정인숙 박사와 정동섭 교수의 인터뷰 현장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른 바 역기능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났다하면 구타를 하셨고요. 아버지는 식사 중에 어머니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손찌검은 안했지만) 격노하시고 밥상을 둘러엮으시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좋지 못한 본을 보고 자라면서 아내(여자)를 무시하도록 의식화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구원과 이단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 8년 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으며 언어적 폭력으로 괴롭혔습니다. 부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대적이고 괴롭히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중 상당기간을 분노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의 형제 중에서 6남 4녀 중 넷째라고 하셨는데요. 4째 아들인 교수님이 4살 무렵 양자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섭: 심리학자들은 초기기억이 그 사람의 인격

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이웃 동네 먼 친척 아저씨가 장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이들 많은 집에 넷째 아들은 있으나마나 하니 저에게 양자로 주세요”라고 흥정을 하던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부모님은 잘 놀고 있던 저를 불러 아저씨 손을 잡아주면서 “가서 호강하고 잘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호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순간적으로 “아, 부모님이 나를 버리기로 하셨구나”를 직감하고 엄마 치마를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 “나는 엄마하고 살거야. 낯선 아저씨를 내가 왜 따라가?”라고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사건은 미수로 끝났지만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5일장이 설 때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저를 양자로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뇌의 상처로 남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까지 정신적 외상 (trauma)으로 남아 저의 정신건강과 언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분리불안과 유기공포로 발전하여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저는 10남매 중 중간 아이로 “조용한 아이”로 자라났으며, 후에 갈등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동일시하는 인물이 안드레인데요, 항상 소개하고 중재하며 화해시키고 통역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을 나누고 싶어 Billy Graham의 <하나님과의 평화>, Paul Tournier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50여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였으며, <부부연합의 축복>,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등 지금까지 18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겁다”는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아버지가 노름으로 돈을 날려 ‘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면소재지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두 번째 외상적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을 깨우쳤지만, 더듬거리며 책을 읽지 못해 급우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저는 책을 읽어서 따라가야 한다고 판단해 학교만 파하면 집에 와 책을 읽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섭 교수의 도서 중 일부를 소개한다

정인숙: 그 일에 대한 충격으로 지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 학습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정동섭: 이 정서적 충격은 저의 인지적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여,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어떤 것이 하늘이고 어떤 것이 구름인지’를 몰라 고뇌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폐아처럼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고, “사내자식이 숫기가 없다. 입이 무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왔을 때, 어머니는 “우리 동섭이가 전학을 온 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책만 읽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 칭찬(?)이 촉매제가 되어 저는 책을 가까이하는 독서중독자가 되었고, 5학년 때 끝까지 하던 학생이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운명론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섭리 중에 저를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중독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책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저는 결국 교육학자, 상담학자가 되었습니다.

정인숙: 대학교 시절에 이단 구원파에 소속해서 다니셨지만 결혼 후에 구원파를 나오시게 되었고 지금까지 구원파와 이단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동섭: 나는 열심히 공부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제가 1차 서울고 시험에 실패해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제가 흥제동 뒤 안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측량을 하러 온 미군 두 명을 만나 영어로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서울에 남아 2차 시험에 합격해 미션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2학년 때 Korea Herald 주최 전국영어웅변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친구의 소개로 '성경을 통달했다'는 구원파 교주 유병언을 만나게 되어 진로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전 12:12)는 말씀으로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취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설득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종교는 궁극적 관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종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진지하게 찾는 것이 대학시절입니다. 지금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만희, 정명석, 박옥수와 같은 거짓선지가 제시하는 그릇된 답에 미혹되어 영똥한 이단사설에 헌신하고 따라가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이 방황하던 길 잃은 양은 고졸출신 돌팔이 목사의 잘못된 성경해석을 따라

8년간의 소중한 젊은 시절을 구원파라는 유사기독교 집단에서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대사관 부공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저는 1달간 영국을 순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런던과 스코틀랜드의 영국교회를 방문하며 (사도신경, 주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무시하는 구원파가 역사적 정통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기도와 찬양, 예배의 필요성을 지도층에 제안했던 것 때문에 저는 '사단의 앞잡이'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온갖 협박과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1977년 그 집단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몰몬교, 형제교회, 지방교회 등 이단을 전전하며 삶의 궁극적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어디서나 항상 모든 사람이 믿는 진짜 복음을 만나기까지 10여년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이단 구원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거짓선지자들의 배후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통일교나 천부교, 신천지, 안중회, JMS, 구원파 등 이단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한 결 같이 불행한 가정 출신이며 따라서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탐심과 호색, 폭력이라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30을 넘기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여) 28세에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은 어떻게 이단에서 돌아와 정통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결혼생활하면서 공부를 시



이영애 사모와 정동섭 교수

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갑자기 상담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정동섭: 제가 미국대사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미국선교사와 상담을 했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보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것이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출석한 날 옥한흠 목사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말라. 너는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구원과에서 원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가짜)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이 아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결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인

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저의 아내는 온유하고 겸손해진 남편의 태도에 감동받아 8년 동안 앓던 위장병과 고혈압, 편두통, 우울증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흥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벽창호 같던 정동섭이 변화된 것이 진짜 기적이라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회심한 후 4개월쯤 지나 미국에서 Gary Collins 박사가 한국에 와 목회상담세미나를 인도하였는데, 그 때 치유의 눈물을 흘리며 통역을 하면서 people helper로, 가정사역자와 상담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내와 함께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늦은 나이에 시카고에 있는 Trinity 복음주의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정인숙: 결혼 후에 미국에 가서 상담에 관한 공부를 하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유학을 가셨는

데오 석사는 상담심리를, 박사는 가정사역을 전공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그 사연을 알고 싶습니다.

정동섭: 분노와 열등감(낮은 자존감)은 저와 우리 가족을 괴롭힌 저의 핵심감정(core feelings)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과정에 '부부사이의 분노'라는 논문을 썼고, 박사과정에는 한국부모들의 자녀양육유형(parenting style)과 자녀들의 자존감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처가 분노의 원인임을 진단받으면서 분노증독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 사랑해야 하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하는 [자존감 세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부관계에 관한 한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일방적 권위가 상호적 권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이던 부부관계가 수평적이고 우애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권위와 순종의 관계를 고집하는 남편은 황혼이혼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피차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부부가 피차 사랑하고 피차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벧전 3:7). 서로에 대해 많이 배워서 알수록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대의 결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있었던 사건

현대의 결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심정대화를 나누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경제적 안정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에 대해 심정대화를 나누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경제적 안정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정인숙: 구원과 뿐 아니라 여러 이단에 대처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단 대처하는 일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정동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생활한지 10여년이 흘러 대전 침신대 교수로 사역하고 있을 때, 구원과 교주 유병언은 제가 구원파를 비판한 논문과 저의 강연내용을 문제 삼아 저를 명예훼손과 12억원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해왔습니다. 당시는 5, 6공 시절이어서 민정당 모범당원이던 유병언은 권력을 등에 업고 저를 고소해 저는 출근길에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가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991년 저는 15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과해 6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단교주를 비판하는 것은 개인감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 분명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유명인은 사망 전까지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며 17차례나 저를 고소하고 괴롭혔습니다.

세월이 지나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나자 KBS, MBC를 비롯해 모든 종편 채널에서 저를 초청해 유명언론과 구원파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셨지요). 지금은 제가 구원파가 오대양과 세월호의 배후라고 말한 것 때문에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은 문제가 생기면 부



정인숙 박사

인하고 투사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1심 재판에서 저들의 요구를 기각하였으나 구원파에서 다시 항소해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박태선의 천부교와 박윤식으로부터도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모든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단과의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맡겨준 십자가로 알고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정사역자와 이단전문가로 세워주셔서 현재 저는 한국가정사역협회 이사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상임위원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맹) 총재로서, TV와 라디오에 출연하여 200여회에 걸쳐 구원파, 천부교, 통일교, JMS,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등 이단은 (1)하나님 대신 우상(교주)을 숭배하게 하며; (2)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3)가출, 이혼을 조장해 가정을 무너뜨리며, (4)교회를 분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전 국민에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로 인해 가정파괴의 피해를 입은 가정이 20,000가정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집단입니다. 그래서 종피맹에서는 종교적 적폐청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기포교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을 규제하기 위해 유사종교규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도박중독과 본인의 분노중독과 독서중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이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 게임중독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역기능가정과 중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동섭: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건강한 순기능가정은 5%밖에 안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역기능가정 출신의 ‘성인아이’(adult child)입니다. 집안에 중독자가 있으면 그 가정을 역기능가정이라 합니다. 가족 간에 안정된 애착관계가 이뤄지고 있으면 부부 간에, 부모자녀 간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순기능적 대화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관계에 친밀감이 없고 회피적 애착이나 저항형, 혼란형 애착이 이뤄지면, 사람은 물질(알코올, 마약, 음식)이나 종교, 사상, 물건, 일, 게임, 도박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중독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중독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중독문제연구소장 Dale Ryan은 “세상을 볼 때 중독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학대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외상(trauma)으로 고통 하는 사람들, 그리고 10% 내의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구의 중심적인 현실은 중독과 학대와 외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이 세 가지이다”고 하였습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심리학자 Gary Collins는 “중독이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통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다. 중독은 단기적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건강이나 가족관계, 심리적 안녕감, 또는 영성 면에서 장기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중독에는 호감중독과 혐오중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담배, 게임, 도박 등은 혐오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 관계, 김치 중독 등은 긍정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소속감과 인정, 공감, 배

“

관계에 친밀감이 없고 회피적 애착이나 저항형, 혼란형 애착이 이뤄지면, 사람은 물질(알코올, 마약, 음식)이나 종교, 사상, 물건, 일, 게임, 도박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중독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중독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동섭 교수

우리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부부는 인생전체가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러, 웃음을 주고받는 소통이 이뤄진다면 중독은 애착관계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인숙: 교수님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께 영향을 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섭: 우리의 정체감과 자존감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중요한 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타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주셨고 나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들 중에는 옥한흠, Paul Tournier, Gary Collins, Lloyd-Jones, David Mace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나에게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서술적 학문(descriptive science)으로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해 주지만,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제

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성경과 신학, 윤리 등 처방적 학문(prescriptive disciplines)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께서 상담학자와 교육학자로서 최근에 [행복의 심리학], [부부연합의 축복], [인성 수업이 답이다] 등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요즘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섭: 우리나라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취하는 경험'(achieving experience)에서는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류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관계하고 사랑하며 대화하는 등 '연결하는 경험'(connecting experience)에서는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온통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고, 예의 범절, 효도, 존중, 배려, 소통, 책임, 정직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80%는 EQ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EQ보다 IQ중심교육을 하다 보니 자살율과 범죄율,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밥상머리교육, 대인관계교육, 체육, 음악, 미술을 중시하는 예능교육에 비중을 두어야만 선진국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전반적인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자기 만족으로, 성경은 행복을 자족하는 마음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빌 4:11-12). 21세기 긍정심리학은 우리의 행복이 로또복권이나 금메달과 같은 대

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기쁨을 자주 경험하는데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심리학은 성취하는 경험보다는 부부, 자녀,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내는데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between)에 있다고 했습니다. 박세리는 “나는 골프선수로 성공했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결혼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부부는 인생전체가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섭: 이 시점에서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사람과의 만남과 책과의 만남을 통해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족 문제, 그중에서도 부부문제입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역기능가정을 순기능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1)대화

(의사소통)기술; (2)분노관리기술(문제해결기술); (3)재정관리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나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혼율을 낮추는 비결은 행복한 결혼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폭력,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부가 성적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성은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부부간의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부간의 갈등, 부부싸움하는 기술, 분노관리기술을 다루는 책을 쓰고 나아가서 가족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책을 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이단교주가 되고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자녀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려면 정통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본을 보여야 하며 성도들의 가정행복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강의와 저술을 통해 가정사역과 이단대처 사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정인숙: 귀한 시간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이비종교에 대처하는 이단예방사역과 우리나라의 행복도를 높이려는 교수님의 사역에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WORLDVIEW

COLUMN



손봉호의 유머 _ “남편 외도 국가별 해결방법”

남편이 외도를 하면

스페인 아내는 남편의 새 애인을 총살하고,

프랑스 아내는 자신도 외도를 하며,

미국 아내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시작하고,

일본 아내는 남편 애인을 찾아가 관계를 끊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한국 아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아내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다.

“남편 외도 하나 막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은 물러가라”고...

* 칼럼의 내용은 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월드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념 중독증



손봉호 교수 (대표주간)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1973년에 개봉된 영화 <추억> (The Way We Were)에는 유대인 공산주의자 케이트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스페인의 독재에 항거하고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미남인데다 글재주가 뛰어난 대학동기(허벌)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으나 남편의 소시민적 사고와 자유방임적인 생활방식을 용인할 수 없어 애기를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만다.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자신의 심각한 투쟁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의 속물적인 사고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사랑, 결혼, 자녀, 돈 같은 것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옳았던 것이다. 일종의 이념중독증에 걸린 것이다.

물론 “이념중독”이란 표현은 “노동중독”과 비슷

하게 “중독”의 본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다. 중독이란 어떤 물질(담배, 술, 마약)이나 행위(도박, 운동, 성)가 제공하는 쾌감에 사로잡혀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이 몰입되므로 쾌가망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중독은 부정적이고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영화 “추억”의 케이트는 자신의 이념이 해롭다고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고상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었으며 제3자도 그의 입장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이트의 상태를 “중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념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몰입”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이념의 옳음에 대해서 “거룩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사랑, 남편, 자식, 친구 등을 상대화하고 포기했다. 한 가지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야와 삶의 폭이 좁아지고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며 매우 독선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념중독은 약물이나 도박중독보다 더 위험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 약물이나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념 중독은 그것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동독이 없어지고 쏘련이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 있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념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도박중독 등은 주로 중독

자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이념중독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주로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도나 문화조차 바꾸려 하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동조하지 않는 “오도된”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 포트 같은 독재자들은 심지어 수천만의 인명을 살상하기까지 했다.

비록 공산주의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치 이념에 사로잡히고 있다. 최근 하버드 법대 서스테인 (Cass Sustein) 교수가 쓴 <#공화국. 사회정보 시대의 분열된 민주주의> (#Republic: Divided Democracy in the Age of Social Media)란 책에 의하면 미국에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정당 당원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1960년에는 공화당원의 5%, 민주당원의 4%였는데 50년 후인 2010년에는 공화당원 49%, 민주당원 33%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도 보수, 진보의 이념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념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어떤 면으로도 기독교적이라 하기가 어려운 데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절대다수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기독교인 상당수가 태극기 집회나 촛불집회의 열성분자로 나섰다. 미국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 분열되어 있고 한국 기독교도 이념적으로 더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시키고 있다.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념중독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이념은 종교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부정적인 의미 (“거짓 의식”)로 “이념” (Ideologie)이라고 비판했다. 이념이란 정치적 관점이 절대적인 진리로 둔갑해서 종교적인 확신으로 변질된 것이다. 영화 <추억>에서 공산주의는 케이트에게 종교와 다름없다.

그러나 진정한 고등종교, 특히 기독교는 이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념은 인간의 산물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 철학자 파스칼은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하게 철학하는 것이다” (Se moquer de la philosophie, c'est vraiment philosopher) 했다. 철학의 주 업무는 비판하는 것이고 비판은 자기비판에까지 이르러야 진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유는 철학보다 더

이념중독은 약물이나 도박중독보다 더 위험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 약물이나 도박중독의 경우에는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념 중독은 그것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높은 차원의 진리. 흔들리지 않는 아르키메데스의 받침대 (Archimedean Pont)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념도 조롱할 수 있어야 한다. 역대의 모든 이념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는 오늘의 이념들도 훗날에는 어리석고 별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상대적인 것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중독은 우선 즐겁거나, 재미있거나, 좋아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념중독도 마찬가지다. 옳아 보이는 정치 이념을 따르는데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 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지혜가 절대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이념도 상대화하고 절제하며 따라야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다. 

중독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이재성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이재성 교수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M. Div.를 마치고, 총신에서 신학석사, 그리고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Ph. D를 이수했다. 현재 고신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거짓 위로자들

오래 전에 보았던 두터운 담배 갑에 비해 최근의 것들은 상당히 세련되고 날렵해졌다. 더욱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담배 갑의 양면에 붙어있는 무시무시한 경고문과 그림이다. 한 면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경고와 금연상담전화번호가 나와 있다. 다른 한 면에는 만삭의 임신부가 태아에게 담배 연기를 뿜는 섬뜩한 그림과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탈아민...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경고와 금연상담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른 중독 물질들에 비해 담배를 대단한 중독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담

배는 여전히 중독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상담 학자로서 담배를 생각해 보면 담배는 많은 남성들에게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것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정작 힘들어 하는 것은 담배가 없다는 사실 자체 보다는 담배 없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사람은 포켓에서 급히 담배를 꺼내어 밖으로 나간다. 장례식장에서도 슬픔을 달래느라 담배를 핀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에서 역시 담배를 찾는다. 담배는 그들에게 위로자이자 상담자이다. 담배를 끊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단순히 습관 때문이 아니라 ‘위로자’의 결핍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담배 없이 달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워낙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어서 끊으려고 하면 강한 금단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금연을 위해서는 쾌락과 보상에 반응하는 중독적인 체질과 몸의 기억을 대치시킬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한편 스스로 마약성 약물을 투여하여 중독에 빠졌던 한 여성은 오랫동안 고통스런 인간관계의 딜레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남은 사업과 가정을 돌보면서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겪었다. 언제나 집에 오면 힘들어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며 안타까운 청소년기를 보낸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에 진학하였다.

불행하게도 함께 자랐던 여동생마저 일찍 세상

을 떠났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여동생은 어머니가 수요기도회에 다니러 간 사이 쓰러졌고, 이 여성이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동생이 죽었을 때 그녀의 감정은 특별했다. 동생이 떠나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남아서 '부담스러웠다'. 그것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남편을 일찍 보낸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딸들에게 잔소리함으로써 해결했다. 일어난 일어난다고, 앓으면 앓았다고, 걸어가면 걸어간다고 잔소리를 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사를 함께 겪어내고 있었지만, 자신을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고 억압만 하는 엄마의 지나친 모습에 뼈아픈 아픔을 느끼면서 그녀는 점차 약물 중독으로 도피하기 시작했다.

나름 고민하며 벗어나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중

독은 더욱 강한 힘으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근무지를 옮겨가며 새로운 분위기에서 고치려고 애를 썼으나 여전히 중독은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 중독의 와중에 그녀는 구원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것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한 미국인 여성이 필자에게 물었던 질문과도 상통한다.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들만큼 비틀거리며 걷던 한 여성이 물었다. “하나님은 벌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결국 중독의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중독자들은 스스로 거짓 위로자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절박하게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한 가짜 천국

중독을 우리 시대의 종교적 질병이라 지적했던 제럴드 메이(Gerald May)는 중독을 “사람의 의지와 욕구를 사로잡는 강박과 강압 혹은 몰입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중독이란 의지를 작동하지 않고 욕구에 굴복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의지를 양도한 상태에서 중독이 주는 쾌락에 몸을 맡기려는 중독은 중독자에게 위험한 가짜 천국을 약속한다.

모든 종류의 중독은 이와 같은 쾌락의 보상과 관련이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포도주나 술을 한 잔씩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느 새 중독의 수준에 와 있는 자신을 뒤늦게서야 발견한다. 그러면서 중독자들은 스스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이다.

물질중독의 재발률이 높은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신체적 중독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이 중독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중독이 불안한 감정을 달래주고 긴장 상태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그러므로 중독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리정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적 행위 역시 심각한 중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성과 남성 사이의 성 관계가 주는 쾌락과 보상이 이성과의 성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에이즈라는 불치병으로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지금 그 쾌락을 얻고 싶은 강력한 유혹 자체가 중독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만일 사회적으로 동성애적 행위를 합법화시켜버린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은 가려지고, 그것을 중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중독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욕구”가 있다. 중독은 그들에게 일종의 피난처를 제공해준다. 그들이 가진 중독의 동기는 “개인 삶의 구석구석까지 퍼지고 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 한다”(아치볼드 하트).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중독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중독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성격을 가진다. 신앙이란 궁극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의 관계, 혹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중독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듯, 그들은 중독물과 함께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가짜 천국’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이다.

물론 중독의 결과는 현실에서 가중되는 비참과 고통이다. 중독은 영적으로 중독자를 참된 창조주와 그의 질서로부터 고립시킨다. 메이의 지적처럼 병적으로 자기만족에 집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시킨다는 점에서 자기 중심주의이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절대화하는 자기 우상숭배이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는 결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다른 형태의 중독인 일중독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기 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들을 안겨다 준다. 그래서 그것은 중독으로 인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는다. 사람들의 인정, 좋은 성과, 경제적인 이득 등이 보상으로 다가 온다. 하지만 일에 빠져서 쉬지 않고 일만 한 결과는 건강의 상실, 가족관계의 붕괴, 예배에 대한 경시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가족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당사자보다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중독자인 가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감정의 고갈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중독이 주는 가짜 천국은 반드시 현실의 중요한 것들을 잃게 만든다.

결국 비참한 고통으로 끝날 중독이지만, 중독되어가는 처음 과정은 철저하게 쾌락이 이끌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듯,
그들은 중독물과 함께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가짜 천국’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이다.

예를 들어 도박중독자들은 이중적 긴장과 쾌감에 갇힌 사람들이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긴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긴장이 그들을 가두어버린다. 그들에게는 강박적인 감정과 충동적인 행동이 자신의 행위와 선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남침례교 신학교의 목회상담학자였던 웨인 오츠(Wayne Oates)는 일중독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반하여 일을 통해 자신의 전능함을 입증하려는 자기숭배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을 간과하고 서라도 일을 통해 자신이 만족과 전능감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사탄은 중독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이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한다.

참된 천국은 진정한 쉼의 장소이다.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도 쉼의 모범을 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중독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여주시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모든 의무와 일로부터 쉬게 하셨다. 낮에 일한다면 밤에는 쉬게 하셨다. 그 쉬를 통해 인간에게 중요한 관계들을 세워 가게 하셨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쉬는 시간을 '함께 낭비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세우도록 하셨다.

하지만 중독이 주는 가짜 천국에는 쉬이 없다. 중독 물질이 없어지는 순간 불안은 순식간에 온 몸과 마음을 장악한다. 중독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균형은 붕괴된다. 참된 천국이 주는 형제자매의 인격적인 관계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남는 것은 이기주의, 치명적인 모험, 사회적 고립과 자기 학대뿐이다.

마음의 회복과 영적 자원들

하트 교수의 말처럼 중독자들의 행동만 멈추게 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 왜냐하면 중독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것을 계속하게 하는 감정적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중독은 중독자와 감정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행동만 멈추게 되면 불안이 더욱 가중될 뿐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치료자들은 일방적인 지시나 협박 보다는 그 사람의 생애 이야기들을 통해 충동의 원인과 유발요인을 자각하도록 돕고, 그런 충동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자신의 감정적 원인을 인식하고 직면하며 타인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독자들을 위한 도움은 밖에서 와야 한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있고 약물도 멈출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허풍 가득한 자만이다. 사실상 그들은 중독에 대해 철저히 무기력하다. 언제든지 스스로 끊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끊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처참을 깨달았을 때에만 비로소 치료는 시작될 수 있다. 이 때 가족과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중독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가족 환경이 불완전하여 중독에 빠졌다면 더 큰 가족인 교회가 이것을 살피고 필요한 정서적, 영적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중독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신앙적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

혜는 중독자들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과 결핍된 자들을 위해 무료로 준비된 은혜이다. 그 은혜는 중독자의 정서, 육체적 패턴, 가족과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관통하며 회복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처방이 된다. 일 중독자들처럼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로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중독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중독은 대개 결핍과 상처 등과 같은 인관관계에서 오는 죄의 폐해 상태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자주 분노를 터뜨리는 무서운 아버지는 연약한 아들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마약으로 도피행위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중독이라는 죄를 짓기 시작한다. 그의 타락한 의지는 중독이 주는 긴장감과 자극을 지속시키려는 중독에 자신을 빠지게 하고 방치해버린다.

중독은 타인의 죄와 자신의 죄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로맨틱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이다. 죄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달콤한 보상에만 몸과 영혼을 내맡기는 비참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상처를 싸매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기도의 도움 역시 빠트릴 수 없는 치유의 요소이다.

중독자들을 위해 절대자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과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자신의 중독을 지속시키는 중독 '부인'(denial) 행위와 자기기만을 성찰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중독자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비참을 알게 된다. 아울러 가족과 교회는 이런 영적 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중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중독자의 강력한 관성을 억제하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미국 알코올 중독 협회의 12가지 강령 가운데 첫 세 강령에서 중독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의 궁극적인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1단계: 우리는 알코올 중독의 힘 앞에 무력하게 되어 삶이 망가졌음을 인정한다. 2단계: 전지전능자로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우리 자신들보다 큰 힘이 우리를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케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 3단계: 삶과 의지를 하나님의 보살핌 앞에 양도하기로 결심한다. 

알코올 중독



조현섭 교수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한국중독심리학회장)

우리나라에서 '중독의 대모'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랫동안(28년) 알코올, 도박, 미디어(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 제49대 한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과 우리나라 초대 Colombo Plan ICCE 이사 등을 역임 한바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인과 함께 필자를 찾아온 한 남자가 손을 짚 뻗은 채 매우 화를 내며 나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나는 손을 떨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마시지도 않아요. 마시는 양도 친구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요.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지도 않죠. 내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알코올중독자일 겁니다. 나는 회사도 잘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술 마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알코올중독자 취급하는 아내와 가족이 문제죠.”

이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코올중독자는 되면 손 떨고 매일같이 고주만태가 될 때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중독이 되기 쉽고 문제발생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마시

는 횟수나 양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와 삶의 질에 더 무게를 둔다.

부인의 말을 들어보자. “결혼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심지어 출산하는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왔어요.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요. 집에 돌아오면 거의 대화가 없고 잠만 자요. 집안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술 마실 일이 생기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고요. 온통 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술 안 마신 날에는 잠을 잘 못자는 것 같아요. 요즈음은 큰 소리로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이 많이 늘었어요. 회사는 출근을 하긴 하는데 동료들보다 승진도 늦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술친구 말고는 친구



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가슴이 뛰죠. 우울하기도 하고요. 나도 애들에게 자꾸 짜증내고 화를 내게 돼요. 왜 사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부인 이야기를 들은 독자 중에는 혹시 이 정도를 가지고 남편을 알코올중독자로 취급하며 상담까지 받으려 갔는가하고 비난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이다. 이 건 다 중독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일단 중독하면 어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코가 빨강게 되는 등 외모가 형편없이 망가지고 항상 술병을 들고 살아야 하며 가끔은 길바닥에 누워자고 길가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는 건 술을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매일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전 보다 마시는 술의 양이 증가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고 짜증이나 화를 잘 내고 매사에 관심이 줄어들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고 해서 모두 손을 떠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환청이나 환시, 환촉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업무에 질도 많이 떨어지고 점차 술 친구 이외에는 대인관계를 하지 않게 된다. 가족에게 관심이 줄어 들고 관계도 나빠진다. 물론 술로 인하여 모든 신체적인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전반적인 삶에 질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자제하거나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된다면 중독되었다고 정의한다. 외국에서는 중독의 정의가 훨씬 더 엄격하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회사에 결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중독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한다.

보다 더 정확한 알코올중독 여부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필자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PDST (Problem Drinking Screening Test)를 사용하여 평

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1점~2점의 경우에는 일반음주자로, 3점~7점이면 문제음주자로, 8점 이상이면 알코올중독자로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필자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왜 중독되는 가이다. 현재까지 알코올중독이 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복합적인 요인

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먼저 유전된다는 것이다. 알코올중독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알코올중독이 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가족이 화합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 우울, 불안, 부적합한 자아개념 및 낮은 자존감 등이 관련 있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가 술을 계속해서 마시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반복적인 음주를 통하여 긴장, 불안 및 죄의식 등의 부정적


PDST(Problem Drinking Screening Test)

질문	0점	1점
1. 나는 과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나는 술에 취했을 때 생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나는 현재 술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나 불평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나는 술 때문에 정신과 증상(우울증, 불면증, 불안, 헛것을 보거나 들음)이 생겼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나는 스스로 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나는 술에서 깨면 혹시 실수하지 않았었나 하는 걱정을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나는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나는 술을 조절해서 마시려고 하였지만, 결국 실패해서 많이 마시고야 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나는 술 마시고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나는 술 마실 건수를 찾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나는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나는 술이 깨면서 진땀, 손 떨림이나 불안, 좌절 혹은 불면을 경험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나는 내 술 문제 때문에 후회해 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나는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의 하나는 술을 마시는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나는 주변사람들이 나의 음주에 대하여 잔소리 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귀찮아 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나는 술이 깨면서 공포(섬망)나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나는 술 때문에 중요한 인간관계가 손상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 감정이 감소됨을 경험하면서 계속 마시게 되고 보고 있다.

술을 마셨을 때 폐해와 부작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일단, 위, 간 손상 등 우리 몸 전체에 큰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뇌와 치매유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예민해지고 불안정해 질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자살할 확률도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이며 의심과 피해 의식이 많고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으며 사람만나기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등 혼자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즉 알코올중독자 가족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및 죄책감등 알코올중독자가 갖고 있는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공동의존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된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의 경우 알코올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고 많은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삶에서도 많은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이나 여성의 경우, 성인 남성에 비하여 알코올의 폐해와 부작용이 크고 빠른 시간 내에 알코올 중독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임신 중에 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지체나 안면기형 등의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며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손실도 발생시키는 등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그 폐해와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만약 가족이나 주변인 중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먼저 위에서 소개한 PDST를 평가해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 후, 3점 이상이면 각 지역에 있는 알코올전문기관을 방문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 초기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로로는 별반 효과가 없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진다. 알코올중독을 유발하는 기본적인 원인등을 파악해서 치료를 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알코올중독은 거의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시간에 해결하려고 조금 해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들도 반드시 치료와 알코올중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알코올중독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죄책감을 갖는 등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야 하며 알코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알코올중독자 스스로가 지도록 하는 등 냉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 알코올중독자를 위협하거나 혹은 감언이설로 달래는 행동은 자제하고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자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역에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개의 알코올전문병원, 알코올중독자 자조모임, 알코올중독자 가족모임, 알코올중독자 자녀모임이 있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무료이다. 꼭 연락해서 전문적인 도움 받기를 권한다. 

게임 · 가상화폐 그리고 도박



전영민 교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센터장)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센터장으로 있으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강사와 한국심리학회 산하 중독심리학회 이사를 섬기고 있다.

1. 도박이란 무엇인가?

도박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최근 수년 동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확천금과 인생역전을 노리는 도박이 확산되고 있고, 게임이나 투자의 탈을 쓰고 점점 진화하면서 보통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5.1%로 성인 100명 중 5명이 도박중독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더 좋지 않은 현상은 도박중독자의 연령이 2~3년 전과는 달리 40대에서 20~30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5년)에서 조사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9.2%,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의 1.1% (약 3만명)가 심각한 도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도박이라고 하는가?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활동이나 사건에 금전이나 가치 있는 것을 내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허용한 합법적 도박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복권,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토토,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경마, 올림픽 이후 시설 활용을 위해 세워졌던 경륜 및 경정,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만들어진 청도의 소싸움 도박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복권이 도박이 아닌 줄 알고 있다. 땀 흘려 일해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도박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온 국민이 도박의 위험성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박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달된 인터넷 시설은 인터넷 도박이 폭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서 사회적 낙인이 강한 도박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의 사적인 스마트폰 속으로 숨어들어오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도박을 할 수 있는 최상의 도박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도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도박으로 생활과 기정이 황폐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도 걸리지 않게 되었다. 불법 인터넷 도박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한 번에 거는 금액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초에 100만원을 잃는 일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30초에 한번 이상 배팅할 정도로 도박판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빠져들게 됨으로서 하루 저녁에 몇 천만원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도박은 알코올이나 마약과는 달리 냄새나 특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아채기가 어렵고 설령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 다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는 달리 도박중독을 숨겨진 중독(hidden addiction)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중독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도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박에는 윤희성과 금전적 손익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까

지가 게임이나 놀이고 어디까지가 투자며 어디까지가 도박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게임도 도박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게임이 도박과 융합하여 이익을 최대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게임에는 게임머니(game money)가 사용되고 있고, 특히 작은 게임머니를 내고도 우연에 의해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위의 도박 정의에서 볼 때 게임머니를 내고 어떤 아이템을 받게 될 것인지가 불확실하고 또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도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결과가 불확실한 아이템 구매라는 사건에 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박인 것이다. 청소년들은 적은 게임머니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무기 아이템을 운 좋게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 구매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조절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임사업자들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인터넷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해주는 곳이 많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게임들이 합법적인 것이기에 별다른 경계심 없이 접근하게 되고, 가끔씩 당첨되는 강력한 무기 아이템과 그로 인한 권력욕구 충족 때문에 더욱 빠르게 사행성 게임에 중독되어 간다.

주식은 도박인가 건강한 투자인가? 주식 자체를 도박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식을 도박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로 인한 중독문제로 도박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 주식은 기업의 매출과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식거래를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파는 주식거래자들을 건강한 주식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까? 큰 기업의 매출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등락을 거듭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정상적인 투자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박중독자들과 유사하게 주식의 등락에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집착증상,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직장가 가정생활이 황폐화되어 도박치료센터를 찾게 된다.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는 도박인가? 최근에는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뛰어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은 흡수자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한탕주의를 바라는 도박이라고 반박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또 다르게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물이 아닌 가상의 상품이다. 가상화폐는 많은 구매자들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를 많이 할수록 그 가격이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심

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큰 변동을 보이면서 짧은 시간에 큰돈을 따거나 잃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카지노 이용객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잃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딸 것이라는 신념이나 지금까지 땀 때문에 다음에도 딸 것이라는 도박자 잘못된 인지요류처럼 가상화폐 거래자들도 이러한 인지요류에 빠지면서 큰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가상화폐로 큰돈을 잃고 도박치료센터를 찾는 내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치료센터를 찾은 서울의 한 명문대생은 가상화폐 거래로 처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이득을 얻은 후 가상화폐 거래를 잘 하면 평생 큰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대출을 받아 가면서까지 투자하다가 모든 돈을 잃고 생활까지 망가지게 되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학생이 한번의 상담만 받고 스스로 조절해보겠다고 치료센터를 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이러한 학생은 현재의 많은 빚을 갚는 유

일한 길은 다시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버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예전보다 더 자주 거래를 하게 되고, 자금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넘어 사설대출 업체를 이용하거나 거짓말로 가족들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빌리는 통로를 이용하면서 결국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앉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 도박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른 즐거운 놀이들도 많은데 왜 도박을 하는 것일까? 왜 도박을 중단하기 힘든 것일까? 도박을 해서 얻는 것이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도박을 해서 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계속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에게 도박으로 큰돈을 따게 해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 사교동기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카드나 화투, 카지노를 놀이로 하게 된다. 특히 노령층의 경우 노인정에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기 위한 소일거리로 화투나 내기 바둑을 두고, 이웃들과 관광여행 중에 카지노에 가기도 한다. 초기 동기는 어울리기 위해 도박을 하지만 점차 도박에서 따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더 나아가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도박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

■ 유희동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도박을 한다. 스포츠를 보는 것이나 직접 하는 것 자체도 즐겁지만 친구들과 함께 경기결과에 돈을 걸면 더욱 큰 재미가 느껴지

기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분들이 화투나 바둑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것도, 내기 당구나 골프를 하는 것도 이러한 유희동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박에서만 유희를 느끼고 다른 취미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유희를 넘어서 쾌감(흥분)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도박에 중독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 금전동기

도박은 본질적으로 돈이 오고가는 게임이다. 대부분의 도박자들의 마음속에는 금전동기가 뱀처럼 꼬리를 들고 있다. 도박을 처음하는 사람들은 돈을 따고 싶은 단순한 바람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으로 가볍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절망스러운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도박밖에 없다는 생각에 금전욕구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만약 현재의 빚을 갚기 위해 도박을 한다거나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로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그것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도박중독장애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흥분동기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긴장과 흥분을 추구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보인다. 도박에 이러한 강한 긴장과 흥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든다. 도박에 거는 돈이 클수록 긴장과 흥분은 더욱 배가된다. 우연히 도박을 하였다가 큰돈을 따게 되면 그 쾌감이 마약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박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 도박에 집착하기 되고, 다른 일상적인 생활이나 활동에서는 흥분이나 큰 재미를 못 느끼고 도박에서만 흥분을 느끼는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이다. 이 상태를 우리는 도박중독이라고 부른다.

■ 회피동기


조용한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나 여성들은 현재 생활의 무료함이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도박자들은 대개 청소년기 보다는 성인기에 도박을 시작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즐기는 것이 거의 없이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만 하며 답답하게 살던 사람이 우연히 카지노에서 돈을 따게 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경우다.

위와 같이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로 도박을 하게 되지만 누구나 도박에 중독되지는 않는다.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였든 금전동기와 흥분동기가 강해진다는 점이다.

3. 도박중독의 기준과 치료방법은 무엇인가?

도박중독이란 “도박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주기적인 통제력 상실, 도박자금 구하는 일과 도박에 대한 집착, 비합리적 사고,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박 행동을 계속하는 것 등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정신장애”라고 규정한다. 즉, 도박중독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못하는 도박행동을 뜻하며,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도박중독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 4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 0, ‘가끔 그렇다’이면 1, ‘때때로 그렇다’이면 2, ‘거의 항상 그렇다’이면 3점을 부여하여, 총합이 4점 이상이면 도박중독, 1~3점이면 중위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나 지인들이 4점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치료를 권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도박중독이다. 1점 이상이라면 비록 아직은 도박중독 수준은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도박중독은 다른 건강한 욕구들을 잃고 도박욕구에만 반응하는 비정상적인 뇌질환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박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가족들과 전문 치료기관이 협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1336 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해주고 있고 또한 전국의 도박중독 전문 치료센터를 통해 도박중독 행동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정문제와 가족문제까지 무료로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1. 귀하는 도박에서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2. 귀하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날 다시 도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3. 귀하는 자신의 도박행위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4. 귀하의 도박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한 생활은 스마트한 믿음을 가져올까?



이형초 교수 (성신여대 심리학과)

이형초 심리상담센터 감사와기쁨 센터장과 미디어중독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사이버대 가족상담학과, 성신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로 심리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디어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다. (재)농어촌육성재단 이사, 서울시 강북·강서·창동 아일센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지갑을 두고 오거나 매우 귀중한 물건을 두고 온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자유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엄청나게 많은 카톡이나 문자, 전화들이 왔을 것이라 생각하며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조용한 기록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흔히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다른 예를 들자면 전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전철에서 무거운 가방을 매고 사람들로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도 아이폰을 끼고 열심히 게임을 하는 남녀노소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환승을 하는 복잡한 통로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연신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을까?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원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음악을 손쉽게 듣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고, 지루하지 않게 게임을 하고, 못 봤던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일상의 달라진 모습이다. 사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의 과학기술 혹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더 빠르고 편리한 삶의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경험이 편리하기만 하고 생활의 유익함만 가져다 줄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만3세에서 69세까지 전체 인구 대비 18.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전년대비 0.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 19.1%, 청소년(10-19세) 30.3%, 성인(20-59세) 17.4%, 60대(60-69세)는 12.9%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발표되었다.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과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스마트폰 사용이 다른 활동보다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

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통계결과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청소년의 과의존률이 2015년 31.6% 이후 1.3%포인트 감소수치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 성인, 60대 모두 과의존률의 증가를 보이는 점이다. 스마트폰 중독의 전연령화,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유아동의 과의존율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전체 과의존율 18.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유아동의 통계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는 점에서 실제 현상은 이러한 수치 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만10-19세) 과의존률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이 24.2%, 중학생이 34.3%, 고등학생이 28.7%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생활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의존 위험군의 스마트폰 이용 주요 콘텐츠는 메신저(95.5%), 게임(91.9%)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위험군과 일반사용자 간 콘텐츠 사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게임으로 나타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도 일반사용자 군도 게임사용으로 인한 우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65.5%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과의존위험군의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심각성과 부작용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스마트폰 과의존 통계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콘텐츠가 게임이라고 나타난 것처럼 자던 아이도, 짜증내던 청소년도 금방 웃게 하는 게임은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인터넷 게임의 중독적인 요소로 여성가족부(2012)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강박적인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및 경쟁심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초창기 게임은 나와 게임기의 대결이었다면 현재의 게임구조는 개인 사용자가 특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므로, 사용자 개인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 게임을 그만두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게임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게임에서 유리한 아이템이 제공되는 보상구조이지만, 게임 보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게임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직접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화면을 켜놓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확률적인 아이템으로 마치 도박에서와 같이 게임이용자는 계속적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시간이나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어 게임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세 번째 요인은 게임의 서열을 통한

경쟁과 인정의 요소이다. 게임에서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나를 나타내게 된다. 현실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반면에 게임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에 열광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게임매출이 2조원을 넘는 회사가 등장하고 있다. 산업면에서 게임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높은 매출액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의 기여도가 높아서 이룬 결과라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게임 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아이들은 더 많이 게임하고 싶어 하는 이때에 게임, 한 때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두겠지 하고 내버려 뒀던 부모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DSM-5)의 'Section III'에 인터넷 게임 사용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가 포함되었다. 진단의 정식준거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되고 있다. 그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모양새를 바꾸고 아이들의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놀이가 게임인 세상에서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와 미디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터넷 게임 사용 장애 (Internet Gaming Disorder)


(1) 진단기준

인터넷 게임사용으로 12개월 동안 아래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에 해당된다면 인터넷 게임 사용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인터넷 게임이 일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 ② 인터넷 게임을 줄이거나 그만두려고 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과민한 정서적인 금단 증상을 보인다.
- ③ 인터넷 게임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난다.
- ④ 인터넷 게임을 조절하거나 그만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계속 실패한다.
- ⑤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이전에 하던 활동을 하지 않고 흥미가 감소되었다.
- ⑥ 인터넷 게임으로 심리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을 계속한다.
- ⑦ 인터넷 게임하는 것을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
- ⑧ 부정적인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게임을 한다.
- ⑨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중요한 대인관계, 일, 교육, 직업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동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쓰지 못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스마트폰이 다음세대의 마음을 점령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시간만이라도 미디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주일은 주일답게 주일에는 게임을 하지 않고, PC방에 가지 않는다. 일주일에 적어도 2일은 미디어 금식일로 정해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미디어 선교사로 양육한다. 인터넷에서 욕하지 않고 선한 댓글달기 운동을 펼친다. 성인물을 시청하지 않고 게임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스마트폰 성경보다 성경책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여름, 겨울 수련회에 스마트폰을 지참하지 않고 진행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와 기도에 그리고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한다. 주일학교 선물로 문화상품권을 나눠주지 않는다. 문화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하면 당장에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만2세 미만의 유아들에게는 모든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뇌 발달과 성장에 유익하다고 대한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임은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빠른 피드백은 일상의 속도를 견디지 못하게 하여 집중력과 인내력을 저하시킨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중독은 사람의 의지로 조절하기 어렵다.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 유혹은 힘을 잃게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막14:38)는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모두 깨어 기도할 때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 대학에 갈 때까지 2G(鬪志)폰으로 살아내라!



권장희 소장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소장은 교직생활을 거쳐 시민운동 현장에서 문화와 미디어소비자운동가로 청소년보호법 입법을 비롯하여, 섯다운제도 도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 YP활동(청소년스스로지킴이, 미디어교육활동) 개발 보급 등을 해왔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민간교육기관인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기쁘게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아이 게임절제력, 인터넷 게임세상 스스로 지킨다. 게임 스마트폰 절제력,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등이 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영유아가가 특히 위험하다!
영유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식당이나, 교회, 여러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유아들을 늘 목격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세 이하 미취학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7.9%로, 성인 과의존 위험군 16.1%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사용시간도 적지 않다. 3~9세 아동의 52%가 하루 평균 82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은

유튜브 등에서 이른바 '키즈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유튜브 랭킹 사이트 'vidstatsx.com'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조회수 상위 20위 채널 가운데, '뽀로로'나 'EBS 키즈' 같은 '키즈 콘텐츠' 채널이 8개가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 일본에서 “아기 봐주는 비디오”라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이 비디오의 홍보문구는 이렇다.

“1세에서 3세의 아기를 위한 [애 봐주는 비디오]는 아기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찰흙과 종이, 블록으로

만들어진 각 동물마다의 특징을 살린 재미난 모습은 울동, 색상, 소리감각을 길러주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또한 엄마가 가사 일을 하는 사이에 아기가 혼자서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흡인력을 지닌 비디오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비디오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사고력과 창의력이 계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디오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뇌 발달 장애, 정신질환이 발생했다. 비디오를 본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일본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비디오증후군 예방캠페인이 벌어졌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 바로 아기 봐주는 비디오 자리를 태연하게 차지하고 있다. 중독보다 무서운 것은 중독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유아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의존되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언어와 사회성, 사고력과 분별력, 절제능력 등을 담당하는 뇌 신경회로의 연결이 부실지고, 결과적으로 언어행동 장애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오감을 자극하면서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통해 대뇌의 사고력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잘 발달된다. 스마트기기 시청각 자극은 그것이 비록 교육용 영상이라 할지라도 각인효과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2010년에 “3세 이하의 유아에게는 절대로 TV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권고문을 학회 소속 6만5천 명의 소아과 의사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 소아를 병원에 데리고 온 부모들

에게 담당의사는 감기와 같은 아이의 질병에 필요한 진단과 처방만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가정에서 TV를 보여주지 말라는 처방을 아울러 해주라는 것이다. 2015년 6월 24일에는 “스마트기기를 보여주지 말라”는 권고를 추가하였다. 우리 부모들도 미국 소아과학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

스마트기기의 역설적 위험은 기기가 스마트하다는 것에 있다. 우리 옛말에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진다’는 말이 있다. 스마트기기를 의존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은 면에서 편리해졌다. 빠르게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었다. 문제는 스마트폰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능력이나 역량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면서 운전자들은 길치가 되었고, 가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환자가 되었다. 어른들은 이미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 그 역량을 확대하는 도구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아동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그들이 의욕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에 과

의존하여 살아가면서 뇌 속에 '시냅스의 가소성'이 생겨 스마트폰에만 관심을 갖는 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와 심심하다고 보챌 때, 그것은 책을 읽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의 속셈은 TV를 보고 싶다거나 게임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부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그 의도를 알기에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10분만 참아보라. 아이들은 보채다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나름의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창의력 개발이다. 창의력은 심심해야 발현되는 것이다. '심심해야 별 짓을 다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심심하다고 하면 미안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라. '이제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겠구나. 더 심심하거라. 심심한 것은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이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도 않는다.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재미에 빠져들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은 점점 퇴화된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은 있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른다, 없다고 말한다. 진로지도는 진로상담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심심하게 살아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어야 진로지도할 수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없이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와 아빠의 대화를 들어보자.

“아빠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별명을 지어보았어요.”

“별명? 뭔데?”

“응, 혼자 놀기 달인!”

심심해서 별 짓을 다하는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 아이는 진로지도 시간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써 보라는 학습지에 22개를 채웠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다섯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미래교육목표 첫 번째는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었다. 누가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심심해서 별 짓을 다한 경험을 많이 쌓아 온 사람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야고보서 1장 17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코딩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AI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만의 고유한 창의성뿐이다. 다보스포럼의 보고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금 직업의 65%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요즘도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앞으로 65%의 직업이 사라질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취직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취업난이라는 과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별 짓'을



TV끄기 현수막.

다 해봐야할 것이다. ‘별 짓’을 다하다보니 그것이 바로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65%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65%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시대이다. 기계는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놀이와 학습, 경험의 과정을 통해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는 바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나쁜 도구일 뿐이다.

접근성을 멀리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마트미디어는 그 어떤 중독성 약물이나 행위보다 중독성이 높다. 그 이유는 바로 접근성 때문이다.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을 멀리하는 것이다. 매일 술을 먹도록 방치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합법적 도박장인 ‘강원랜드’를 깊은 산속 정선에 허가한 이유는

공간적 접근성을 멀리하기 위해서이다. 로또나 경마를 주말에만 하는 이유도 시간의 접근성을 멀리하여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술과 담배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이유 또한 대상의 접근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향정신성 마약류는 근본적으로 생산과 유통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시간이나 장소, 대상의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은커녕 심지어 PC와 달리 24시간 사용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만이라도 손에서 분리될 기회가 있었지만,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보조배터리’가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식탁에서도, 침대에서도,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우리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잠언6:27-28)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해야할 첫 번째 조치는 접근성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미디어교육 센터는 매년 사순절기간에 교회로 하여금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세이레동안만이라도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치우거나 현수막으로 덮어놓기. 둘째, 중독성 높은 앱을 삭제하는 스마트앱 청소하기. 셋째, 스마트폰 제로의 날, 특별히 주일에 스마트폰 집에 두고 교회가기 등의 다양한 접근성 차단 캠페인을 교회가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에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내도록 ‘스마트폰제로’로 살아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투지(鬪志, Fighting Spirit)를 갖고 대학에 갈 때까지 2G폰으로 살아내

기 캠페인이 그것이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차원에서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 몇몇 공립 학교에서도 개별학교 차원에서 스마트폰제로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 3월에는 이천 도암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이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단말기를 교체하고 살아내는 서약을 하고 시행하고 있다.

‘스티브잡스’가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다는 일화가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었다. 그 자신도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매일 저녁 가졌다고 한다. 이 사실은 ‘스티브잡스’ 집을 자주 방문했던 전기 작가 ‘윌터아이작슨’의 증언이었다. 아이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도구가 아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동청소년기에는 가능한 멀리하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암초 스마트폰 제로 서약.

쇼핑중독?

그 어떤 파국적 습관에 대하여



조성민 센터장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춤추는 목수가 되고픈 심리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현재 서울 중구의 마음산책(구 마음벗) 심리상담센터장이며, 부설 중앙중독심리연구소장입니다. 심리학(임상심리 전공) 박사이며, 임상심리전문가, 중독심리전문가입니다.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이다. 소비는 내수를 진작 시키기도 하고, 개인의 소유욕구를 충족시켜주며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자율성의 욕구까지도 충족시켜 주는 행동이다. 때로는 소속감의 욕구까지 충족시켜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무언가를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어 하는 욕구와 함께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언뜻 보기에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욕구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대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 자율성이 충족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웬만한 거래처 사장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골프클럽 회원권 하나 정도는 나도 가지고 있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려 애 쓰면서 살기도 한다는 말이다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말이다).

소비, 구매, 쇼핑은 현대 인간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마치 숨쉬는 것과 같이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에 우리는

왜 ‘중독’이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고(DSM이나 ICD같은 공식적인 진단편람에 등재된 진단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심각한 마음자세로 그 행동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일까?

최근에 쇼핑중독과 관련된 글 청탁을 자주 받는 편이다. 중독문제에 나름 오랜 기간 몸담아왔지만 다소 의아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과소비 근절’ 같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오랜 관념 때문에 미리미리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인지?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나 혼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과도한 소비, 충동적인 구매행동, 수집광적인 쇼핑 같은 문제를 보이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주변에 걱정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니, 일단 문제적 현상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성급하게 위에 열거한 문제들에 ‘쇼핑중독’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고 나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현상을 충분히 파악하기 전에 그 현상에 이름부터 붙여 놓고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이름에 맞추어서 우리의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일이 아주 쉽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낙인효과'라고도 부른다.

지금 당장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마지막 기회”라던가, “이런 구성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 심장이 방망이질을 한다. 신발장이 이미 포장도 뜯지 않은 한정판 운동화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한정판은 쉬지 않고 나온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한정판을 보는 순간 이미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은 없다. 이미 제 3금융권에까지 갚지 못 하고 있는 채무가 있고, 배우자로부터 이혼 압박까지 받고 있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이미 찢겨 먹은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빛을 내서라도 물건을 사고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 후회와 죄책감과 자책과 자기비하를 시작한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혹은 그래서 더) 또 다시 홈쇼핑 채널을 켜다. 이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런 문제적 현상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중독적 수준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들로는 높은 가용성과 높은 접근가능성을 들 수 있다. 가용성이 높다는 것은 아주 쉽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들이나 산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채취를 하여야 했고 여기에는 상당한 숙련이 필요했다. 처음엔 생소했던 홈쇼핑이 너무도 익숙해져 있

고, 인터넷쇼핑 역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모니터로 살펴 본 후 손가락질 몇 번이면 인터넷 결제까지 푹푹! 무언가를 하는 방법이 쉬워질수록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접근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공간)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다녀야 했다. 시장이라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인류사로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대형몰이 여기저기에 있고, 심지어는 대형빌딩의 높은 층에 살면서 아래층에는 대형몰이 있는 곳이 너무나 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빌딩들이 들어차는 것을 개발이라 부르면서 숭배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on-line 쇼핑몰은 가상세계라 부르기에 어색할 만큼 일상이 되어 버렸다.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소비하라, 소비하라” 외쳐대고 있는데, 절제 있는 쇼핑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쇼핑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한 번뿐인 내 삶은 소중하니까. 적어도 ‘쇼핑중독’이라는 족보에도 없는 병명을 부여받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지면관계상 핵심적인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일명 ‘쇼핑중독’이라 불리는 함정에서 빠져 나오려는,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변화동기를 스스로 찾아서 단단하게 간직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적절한 목표를 세워두고, 유능한 자기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는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런 의지 혹은 동기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이 파국적 습관에 빠지지 않거나 그 함정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동기 역시 자신 스스로의 것이어야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늘 기억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늘 실험하듯 자기-관리 연습을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살면서 다시는 쇼핑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이다. 당신도 나도 그 누구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잊지 않는 것이지, 단 한번

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강박적인 목표는 조그마한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하면서, 손쉽게 '회복 혹은 건강한 삶의 목표'를 포기하고 싶게끔 만들기 십상이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간혹은 식단과 운동 관리에 실수하여 당 수치 관리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오랜 연습으로 일정한 틀을 갖추고 나면(유능한 자기 관리자로서의 연습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 금방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과도한 쇼핑은 분명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거기다가 '쇼핑중독'이라는 무시무시한 병명을 낙인처럼 찍어 놓고 겁부터 먹거나 겁먹게 할 일이 아니다. 지나친 두려움과 과도하게 심각한 태도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도 역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파국적 습관일 뿐이다. 자, 이제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일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숲길을 뚜벅 뚜벅 걸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듯이 말이다. 

중독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학생회(VF)의 총무 및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중독은 근자에 들어 점점 더 강렬히 주목을 받는 사안으로 자리잡았다. 과거 15-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중독의 외연(外延)이 크게 늘어났고 중독은 종교 안팎을 막론한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중독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 빈번히 시도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독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된다. 하나는 **물질 중독**으로서 알코올이나 니코틴 또는 여러 종류의 약물(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이 중독의 현상을 촉발하는 경우이다. 또 한 부류는 **과정 중독/행위 중독**이라 불리는 데, 여기에서는 병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들 (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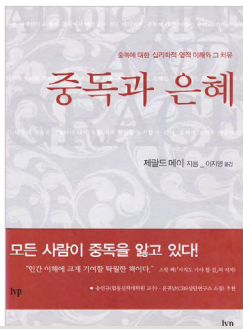
성, 쇼핑, 인터넷 등)이 중독의 내용을 구성한다.

중독에 관한 책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은 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양해서이기도 하고, 중독과 관련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안들이 워낙 여러 방면으로 부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물질 중독이든 행위 중독이든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갖가지 형태의 중독들 [술, 담배, 음식, 마약, 도박, 포르노그래피, 인터넷]을 취급하는 책들이 등장했고, 중독의 현상을 심리적·생리적·종교적 각도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는 각 방면의 서적들이 출간되었다. 중독이라는 증상을 뇌 영역에서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의거해 규명하려는 책자

들이 수효를 더하는가 하면, 사회 구조 또한 중독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외치는 저자도 있다.

이렇듯 중독 관련 서적이 즐비한 현황인지라 필자는 평소보다 더 초연한 선별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십 수년 전까지 중독에 관해 굴지의 저술로 각광을 받았던 번역서이다.



제랄드 메이 지음,
이지영 옮김, 『중독과 은혜』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5).

저자인 메이(Gerald G. May, 1940-2005)는 25세에 의대를 졸업하고, 공군 및 교도소 연관 건강 센터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릴랜드 주의 <셰일럼 영성 개발원>(Shalem Institute for Spiritual Formation)에서 관상 신학과 심리학(contemplative theology and psychology)을 다루었고, 후에 이 분야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다. 그는 실존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의 이복 동생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듯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라 할 수 있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중독의 통전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는데, 1장

“욕구”에서는 중독과 은혜에 대한 자전적 깨달음을 소개하고, 2장 “체험”에서는 중독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며, 이것을 심리적 [제 3 장 “마음”] · 신경학적 [제 4 장 “몸”] · 신학적 [제 5 장 “영혼”] 각도에서 고찰하고 있다. 필자로서는 제 3, 4장 (특히 4장)의 내용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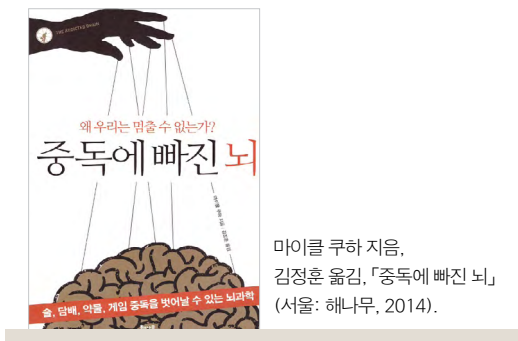
후반부에 해당하는 세 장은 각각 은혜의 특성 규명 [제 6 장 “은혜”], 은혜와 의지 사이의 관계 검토 [제 7 장 “능력 부여”], 변화를 위한 제안으로서 헌신된 삶의 소개 [제 8 장 “집으로”]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교류 및 합일을 원하는 본유적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을 통해 **채우려 든다**는 것이다” (119 쪽). 인간의 모든 중독 현상은 여기에 기인한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상실했고 여러 종류의 대상에 집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상이 어떤 종류의 것 - 그것이 약물이든 [물질적] 권세든 [정신적] 하나님 이미지든 [영적] - 이든, 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 우리의 의지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 로써 가능하다.

물론 어떤 이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조차 중독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저자는 단연코 아니라고 답한다. “하나님은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중독은 있을 수 없다” (125쪽).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모든 것 - 심지어는 특정한 영적 훈련까지도 - 이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책이 제공하는 가장 뛰어난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찰력에 접하면서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불편함과 거부감의 발동을 의식하기도 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눅 18:9-14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마약, 대마초, 알코올, 도박에 중독된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발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독과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한 번쯤 읽고 자신을 성찰해야 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중독에 대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의 원제는 *The Addicted Brain: Why we abuse drugs, alcohol, and nicotine*으로 되어 있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선명히 밝힌다. 마약, 알코올 및 니코틴 중독의 실상을 뇌의 생리학적 경로와 생화학적 반응에서 찾으려는 것이 책자의 취지이다.

저자인 쿠하(Michael J. Kuhar, 1944-)는 상기 서적을 저술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하여 작동하는 방식과 약물이 뇌에서 일으키는 작용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 업적과 학문적 명성을 쌓았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약학과에서 가르치다가 [1972-1985년] 새로 개설된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의 소장으로 10년간 재직한 후, 1995년부터는 에모리대학교의 연구소와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 분과장 및 신경 약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중독에 빠진 뇌」는 4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차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부 뇌는 무엇을 원하는가?

1장 중독의 공모자, 뇌

2장 약물을 욕망하는 인간에 대하여
동물실험이 말해주는 것

3장 뇌가 만들어 내는 쾌락과 보상

2부 우리는 어떻게 중독되는가?

4장 뇌에서 일어나는 약물 작용의 ABC

5장 쾌락의 검은 그림자

6장 약물은 왜 그토록 강력한가?

7장 뇌는 바뀐다, 이주 오래도록!

3부 우리는 무엇에 중독되는가?

8장 누구나 중독자가 될 수 있다.

9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왜 문제인가?

10장 도박, 섹스, 음식의 유혹

11장 술, 담배, 커피, 그 밖의 약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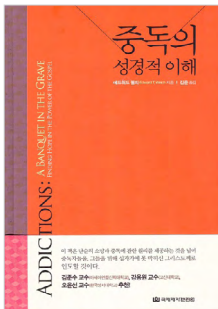
12장 중독에 더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의 뇌

4부 중독은 치료될 수 있는가?

13장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14장 미래에 가능한 일들

중독에 대한 전혀 다른 각도 -상기 서적과 다르
지만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 에서의 접근이 아
래의 책에서 발견된다.



에드워드 웰치 지음,
김준 옮김, 『중독의 성경적 이해』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저자인 웰치(Edward T. Welch, 1953-)는 <기
독교 상담 및 교육 재단>(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 CCEF)의 상담가이
자 교수로, 또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의 실천 신
학 교수로 봉사하고 있다. 구태여 따지자면 그는
아담스(Jay E. Adams, 1929-)가 제창한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 -요즘은 “성경적 상
담”(Biblical counseling)으로 통하는데- 계열에 속
해 있다.

이 책은 중독을 이해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제1
부 신학적 고찰 [1-4장]을 펼친다. 그리고 나서 제
2부 본질적인 신학적 주제[5-12장]는 중독에 빠진
이가 어떻게 변화를 거쳐 회복에까지 이를 수 있

는지 설명한다.

먼저 웰치는 첫 출발부터 “신학(하나님 지식)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확신과 전제 하에서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 죄이
고, 우상 숭배이며 간음이고 어리석음이다. 중독
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 → 노예화 → 비극의 수
순을 밟게 한다.

그러나 중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의 능
력 앞에서 얼마든지 변화와 회복의 길은 열려 있
다. 이 과정이 힘들고 더딜 수는 있지만, 인정 →
노출 → 하나님을 알고 경배함 → 점진적 성화 →
공동체적 도움을 거쳐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단계
들이다.

웰치의 책은 중독의 실상을 매우 현실적으로 파
악하고 있고, 변화의 설명과 묘사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 · 말씀의 구체적 적용 · 삶의 센스 있는 대
처라는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통합한다.

나머지 세 권의 책은 구체적 중독 항목과 연관
된 것들이다. 먼저 포르노그래피 중독에 관한 도
서이다.



윌리엄 M. 스트러더스 지음,
황혜숙 옮김, 『남자의 뇌: 중독으
로부터의 자유』 (서울: (주)대성
Korea.com, 2016).

저자인 스트러더스(William M. Struthers)는 현재 일리노이 주 <휘튼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전공 분야는 생물심리학(biopsychology)으로서, 특히 뇌와 신경에서의 자극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과 변화를 살펴보면, 왜 이것이 중독 현상을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 책자도 내용이 크게 1,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포르노그래피의 작동 방식 - 중독으로 가는 남자의 뇌**라는 제목 하에 4장이 할애되어 있다. 다음은 그 구체적 내용이다.

1. 일상화되어 버린 포르노그래피
2. 포르노가 죄입니까?
3. 강박, 충동, 중독에 이르는 길
4. 쉽게 지배 당하는 남자의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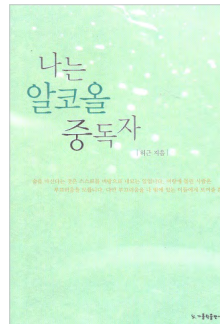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2부는 **건강한 남성성과 성 - 회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 포르노그래피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방도를 논하고 있다. 역시 4장이 배당되어 있는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남성, 존재에 대한 근본적 해석
6. 남자답다? 남성성에 대한 연구
7. 친밀함에 대한 욕구와 성적 갈망
8. 회복, 신경 회로의 재배성과 성화

이 책자는 남성들의 심리와 처지를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포르노그래피 중독에 대한 뇌과

학적 지식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신학과 심리학·뇌과학의 통합 시도 서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책은 각각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에 관한 자전적 기술서이다. 먼저 알코올 중독에 관한 한국인의 책자부터 선보이고자 한다.



허근, 「나는 알코올 중독자」
개정 초판 (서울:기독교출판사,
2004).

이 책자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회복이 된 인물의 직접 경험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가톨릭 교회의 사제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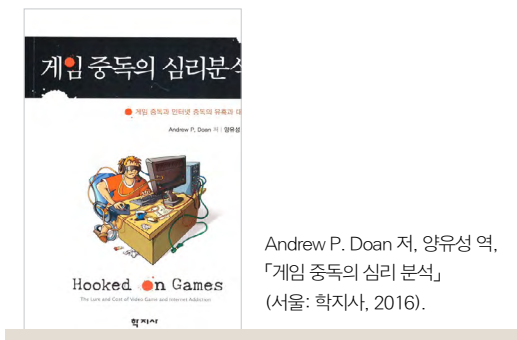
허근 신부는 1980년 사제 서품을 받고 돈암동 성당 보좌 신부로 사목 활동을 하다가 1982년부터 3년 간 해병대 군종 신부로 배속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음주 습관이 몸에 배었고, 재대 후 본당 사목을 하면서 신도들과의 친교를 빙자하여 술자리에 어울리고는 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10년이 흐르는 동안 음주 습관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져 심지어 어떤 때는 술에 취해 미사 집전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저자는 광주의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입원하여 4단계에 걸친 호된 치료와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에야 비로소 단주가 가능해졌다. 그 후 199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심리 치료와 영적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비록 글의 내용 가운데 학술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없지만, 그래도 알코올 중독 및 회복에의 경험,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사역에의 경험 등은 이 책자의 가치를 훨씬 돋보이게 해 준다.

마지막 책은 게임 중독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Hooked on Games: The Lure and Cost of Video Game and Internet Addiction*으로 되어 있어, 한글 번역서처럼 “심리 분석”보다는 비디오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이 제공하는 유혹과 그로 인해 치루게 되는 대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저자는 도안(Andrew P. Doan)은 베트남 난민으로서 네 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전입되었다. 피부색과 용모로 인한 열등의식,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양극성 장애, 그러면서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인 컴퓨터 실력 등은 그를 비디오 게임 중독의

완벽한 후보로 만들었다. 후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의학 박사-철학 박사 연계 프로그램에 선발될 정도로 실력자였지만, 실험실에서의 좌절 등 때문에 그는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의 틈바구니에서도 일주 40-50시간을 게임에 쏟아 붓는 괴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결혼 생활의 위기와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교회 출석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참여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며 드디어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찾았다. 오늘날 그는 명망 있는 안과 분야의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고, 게임과 인터넷에 중독된 이들의 치유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기 책자를 집필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이 게임 중독을 치유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내로라할 만한 안내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조차도 - 왜 게임에 집착하고 중독되는지 이해를 시키는 점에서는 깊은 공감을 일으킨다고 하겠다.

중독 - 현대인은 점점 더 교묘한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주위의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도 이제 중독의 실상을 간파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화급한 임무가 되었다. 

모든 **중독** 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선포하라!!**

중독회복상담학교 7기

알코올. 도박. 약물. 게임. 담배. 성. 음식. 쇼핑. 채무. 성형. 일. 종교. 스마트폰. 동반의존.....

중독회복상담학교는 중독의 문제를 바로 알아
중독 회복 사역자로 세워가는 학교입니다.

모집안내

일정 : 2018년 3월 5일(월)~5월 28일(월) (12주 과정)

*공개강의 (2주) 3월 5일(월), 12일(월)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 서울성남교회(서울역 12번 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57길 26

대상 : 중독자 및 가족, 목회자, 평신도, 일반인

중독 관련단체 및 사회복지, 상담 기관 실무자

등록비: 12만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8901-04-071235 기독교중독연구소

*등록자명으로 입금 후 문자로 성명, 소속, 교회, 직분 알려주시면 등록 완료

후원교회

서울성남교회, 예성교회, 새가정교회

후원단체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글로벌디아코니아, 중독포럼, 영풍FC, 예하운선교회, 사단법인사랑샘공동체

협력단체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제자로교회, 무지개가족치유센터, 함께하는상담센터, 두드림상담센터

중독회복상담학교 (7기) 강사진 및 강의일정

	일 자	강 의 제 목	강 사	약 력
1 주	3월 5일 (월)	중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해국 박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중독포럼 대표
		가족과 함께 회복 달리기!	권혜진 강사	강남을지병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독과 복음	김상철 목사	파이오니아 21연구소 소장, 영화 "중독" 감독
2 주	3월 12일 (월)	중독자 가정의 자녀 회복 과정	이명진 박사	마인드웰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냉정한 사랑	노미옥 강사	기독교중독연구소
		중독과 공동체	윤성모 목사	라파중독치유공동체 대표
3 주	3월 19일 (월)	중독 그리고 도파민	이재원 박사	이지브레인 원장
		아이스 브레이킹	남달리 소장	좋은세상만들기 소장
		회복은 달팽이처럼	나카가와 애리	기독교중독연구소
4 주	3월 26일 (월)	중독의 예방과 정책	정술기 박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V중독의 이해	박미경 강사	자기사랑학교 간사
		중독과 영성	문희경 목사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5 주	4월 2일 (월)	도박중독자 가족치료	채정아 박사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임미옥 강사	기독교중독연구소
		게임과 도박, 경계가 허물어지다	홍성관 교수	한국IT전문학교 게임스쿨 게임심리학 교수
6 주	4월 9일 (월)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12단계	조근호 박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회복의 연결고리	원유수 센터장	서울다르크 센터장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정현숙 소장	달팽이심리상담센터 소장
7 주	4월 16일 (월)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김영호 박사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자조 모임 안에서의 회복 과정	김형석 강사	회복강사
		스마트폰 중독의 이해와 예방	박종연 목사	한국미디어상담연구소 소장
8 주	4월 23일 (월)	약물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	조성남 박사	강남을지병원 원장
		중독자의 성향	박영덕 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생활지도사
		정서관리를 통한 몸 마음의 힐링	신차선 박사	평화만들기학교 대표
9 주	4월 30일 (월)	중독 가정 자녀들의 회복	김만희 원장	평온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중독자의 회복여정	윤진 강사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회복자상담가
		중독자 가정과 동반의존	고병인 목사	고병인가족상담연구소 소장
10 주	5월 14일 (월)	온라인 중독과 회복의 은혜	차현철 목사	평온의원 찬양 목사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김혜정 전도사	반석위에 세운 교회
		분노중독	정동섭 목사	가족관계연구소 소장
11 주	5월 21일 (월)	혼자라서 두려운 관계중독-애착장애	김소명 박사	국제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성중독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미경 강사	위니캣 정신분석상담센터 심리상담사
		성중독의 심리 이해	김형근 목사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소장
12 주	5월 18일 (월)	인정중독	정인숙 강사	기독교중독연구소
		회복으로 가는 길	유성필 소장	기독교중독연구소 소장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WORLDVIEW

Book & Culture

윤성진의 십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의 미학



심상용 교수 (미술사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심상용(동덕여대 미술평론)교수는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각각 회화와 서양 회를 전공했다. 1989년 도블해 파리 8대학에서 조형예술학으로 석사와 D.E.A.를, 파리 1대학에서 미술사학으로 박사학위 (1994) 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아트 버블』 (2015.리슨투데이), 『예술, 상처를 말하다』 (2011.시공사), 『시장미술의 탄생』 (2010.아트북스), 『속도의 예술』 (2008.한길사), 『천재는 죽었다』 (2003.아트북스), 『명화로 보는 인류의 역사』 (2000. 영교) 등이 있으며, 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이론학회 회장, 기독교미술협회 미술이론 분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미술비평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미술전문지 <계간 컨템포러리 아트 저널>의 발행과 편집에 관여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에 재직 중이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사방 벽과 중앙 테이블에 십자가로 가득한 조각가 윤성진의 이번 전시 주제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다. 콜로새서 1장 16절에서 온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구절에는 생전의 폴 고갱이 그토록 답하고자 했지만 결국 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있다.

1897년 폴 고갱(Paul Gauguin)은 물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Where do we come from, What we are, Where are we going)” 하지만 고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이 그림이 그려지던 해,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의 시발점과 현재, 그리고 종착역에 대해 자문했던 그해, 그는 모아두었던 비소를 한꺼번에 입에 털어 넣어 자살을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의 삶도 이 실패했던 자살보다 결코 덜 비참하지 않았다. 그가 쓴 시(詩)들에 등장하는 ‘싸구려 포도주’와 ‘목을 맨 사람의 집’, ‘분뇨를 수거하는 여

성' 등은 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생생한 비유들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키즈 제도의 도미니카에 정착한지 2년째인 1901년 숨을 거두었을 때, 지역의 주교는 그의 사상과 품행을 들어 교회장을 거부했고, 그의 몇몇 그림들은 음란하다는 교회의 판단에 의해 불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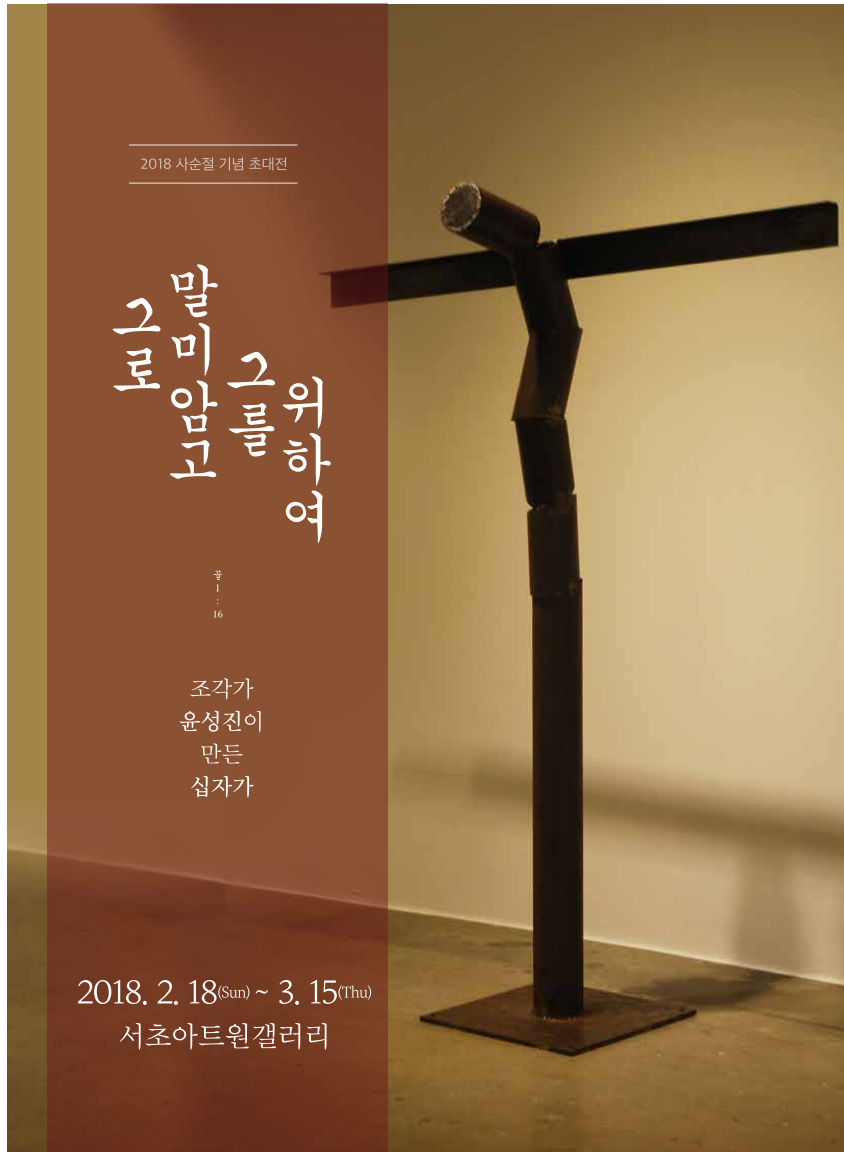
“내 가슴은 한낱 먼지 나는 샘/ 떨어진 문물은 이미 냄새가 난다./ 탐스러운 내 마음의 가지 위에서/ 전을하던 물기 어린 사고에서/이제 어이할거냐” 자신의 시 <천국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에서 고갱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Francis Thompson)은 탄식한다. 톰슨에 의하면 멋져 보이는 철학적 사유의 끝은 슬픈 탄식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오만의 결말은 '색 바랜 주검'과 '더럽혀진 대지'일 뿐이다. 이는 다른 아닌 톰슨 자신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다.

톰슨의 삶도 고갱의 것만큼이나 녹록치 않았다.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유년기를 보낸 후에도 늘 빈곤과 결핵이 동반됐고,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되자 했던 꿈도 무산되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고자 했던 꿈도, 마지막으로 군인이 되고자 했던 꿈도 좌초되고 말았다. 가톨릭 잡지의 편집자 메넬 부처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도와줄 때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이 말하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런던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자요 아편중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분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천국의 사냥개>에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녹아 있다.

기이하고 가련한 하찮은 것이
왜 너를 특별히 사랑하는가?
부질없는 일을 볼 뿐인 것을.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적이 있어야 하나니
한낱 한 덩이 진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가련하다 네 무지여
사랑받기에 보잘 것 없음을 모르는!
...
사랑하는 이여, 눈 감고 떠느냐
네가 찾는 이, 그가 나로다!
나에 대한 너의 사랑 이제 사라졌으나
누구라서 사랑하겠는가, 하잘 것 없는 너를
나, 나 말고 누구겠는가.

톰슨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모ffet 코트리(R. Moffat Gautrey)의 표현을 빌자면, 그 엄청난 연인(This tremendous Lover)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되었음을 시인했을 때, 그 사랑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새로운 호흡과 감각을 갖게 되었노라 고백한다.

조각가 윤성진 역시 이 엄청난 연인에 체포되는 순간- 이 사건은 1997년 그가 파리에 거주할 때 일어났다-, 그 운명의 현장인 십자가를 결코 등질 수 없었다. 이때부터 윤성진의 조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단지 그가 부단히 십자가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재나 형상으로서의 십자가는 그가 겪은 급진적인 미학적 도약의 맥락에서 보면 지엽적인 요인일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조각이 더는 저자의 존재성을 과시하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33길 11 서초교회 2층 서초아트원갤러리 Tel.02)591-0537 관람안내 화~주일 오전 11시~오후6시(무료)

러나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사로잡은 그 엄청난 연인이기 때문이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가 ‘윤성진’이라는 이름 석 자를 전시 제목에서 빼고 싶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리라. “윤성진이란 이름을 십자가와 함께 넣으려니 십자가 앞에서 하찮은 미물이 나서는 것 같은” 민망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은혜로 주신 약간의 재능을 부려 십자가를 만드는 주제에 이름 석 자를 끼워 넣다니 예수님께 송구하기가 그지없다.”(윤성진)

윤성진은 깊은 기독교의 영성이 담겨있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끼고 만나는 새로운 십자가를 만드는 길로 들어섰다.

십자가상의 미학


이런 맥락에서 윤성진의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의 근현대 미학에 매몰되어 있는 오늘날, 그 전복과 관련한 급진적인 미학적 선언의 산물이다. 이 ‘십자가상의 미학’은 전복적이고 혁명적이다. 윤성진은 하늘의 엄청난 연인에 체포당한 뒤,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기독교를 “껍데기만 남은 유적”으로 간주하는 유럽의 근현대 철학, 문화, 예술 이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빈털터리라는 사실 말이다. 십자가상의 미학에서 예술가는 인문주의-낭만주의의 DNA를 품은 ‘작은 신’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예술창작행위 역시 소영웅주의적 주체가 펼치는 장이 아니다. 예술가와 그의 예술 하는 행위는 조금도 특권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프랑스 파리에서 기독교 신앙과 예술의 일치, 그 중심이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한 예술의 깃발을 세우는 운동을 꿈꾸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도 했던 것이다.

십자가상의 미학과 서구의 모더니즘 미학은 마치 양과 염소처럼 양립할 수 없다. 서구 모더니즘 미학의 맥락에서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차단하고 진지한 사고를 중단시키며 실생활의 확고한 진실과는 유리된 알팍한 환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일 뿐이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후하게 쳐 봐야 박물관을 장식하는 데 유용한 ‘철지난 아이 콘’ 이상이 아니다. 윤성진이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듯, 바탕 자체가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기도 한 작금의 글로벌 현대미술 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칫 웃음거리

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이미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의 미학에서 예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에 의한 ‘소명의 행위’이다. 창세기 1:27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밝힌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에 대해 옥스퍼드 대학교의 성서신학자인 제임스 바(James Barr, 1924~2006)는 성경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소명’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지닌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명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톰 라이트(N. T. Wright)의 생각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특징적이거나 특별한 능력 또는 특성이 아니라, 소명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 문제의 소명은 창조주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인간이 특별한 역할을 맡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미학, 곧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의 소명의 미학은 자신의 존재성을 과시하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데, 드러나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윤성진의 십자가상들은 하늘의 연인의 구속으로 인해, 이제 다스림의 소명에 부응하는 예술로 부단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의 값진 산물들이다. 

딸의 편지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해 여수에서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세계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대학생할 마지막 한 해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는 딸아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보내 준 카드랑 캔디 그리고 책 너무 고마워요. 예쁘게 포장한 것 보고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엄마가 쓴 카드하고 아빠가 남긴 전화 메시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보고 싶네요. 그런데 아빠, 엄마! 요즘 나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서 더 힘이 들어요. 감사할 것은 너무 많은데, 어떨 때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별로 살기가 싫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떨어

져 살기는 절대로 싫어요. 이런 내 마음 이해가 되세요? 오클랜드에서 일 년 동안 빈민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믿음이 적었나? 무엇을 얼마나 다르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고 할까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소망 안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하지만 소망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우울해.

믿음이 어쩔 이렇게 없을까? 아빠, 엄마.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사랑 모두 다야! 그러면서도 왜 나는 재미있게 살아가지 못할까? 행복, 기쁨, 재미... 이런 것은 웬지 나에게만 낯설기만 해요. 왜 그렇지? 너무 이상해요.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빼고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

꼭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같이 생각하고 말하지요?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고 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계속 기도 해 주세요. 사랑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하나님의 얼굴이 엄마, 아빠 안에서 나한테 나타나! 이것 읽고 놀라지 마세요! 요즘 특별히 어려워서 그래요....”

또박또박 한글로 단정하게 써 내려간 딸아이의 편지였습니다. 딸의 편지를 받아 들고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었지요. 편지에서 전해져 오는 딸아이의 아픔이 그대로 제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 왔기 때문입니다. 활기차고 신나게 보내야 할 젊음의 나이에 딸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일까? 저는 딸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몇 번이나 편지를 되풀이해 읽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1년을 도시빈민 선교에 헌신한 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던 딸이, 왜 갑자기 이런 깊은 영혼의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끝나치고 싶다’고 말하는 딸에 대한 걱정과 연민으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딸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은아야! 솔직히 엄마는 은아의 편지를 받고 조금 놀라고 당황했어. 엄마는 은아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싶어 몇 번이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엄마는 은아 나이 때 어땠나 엄마 자신을 돌이켜보았지. 은아야! 은아는 하나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도 은아와 다르지 않았음을 발견했거든. 그 시절 엄마도 은아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 엄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허상이 아닐까? 설사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도 저 멀리 우리 인간들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런 분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그치지 않는 의문과 회의, 의심에 싸여 있었단다.

은아야, 나는 너의 방황과 갈등을 사랑한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아파하고, 낙심과 회의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인내하며 잘 지낸다면, 살아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은아를 붙잡고 일으키시리라고 믿기 때문이야.

믿음은 신뢰란다.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시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야.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들이 확실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오히려 보이는 실체 뒤에 숨어 있단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보고 듣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기만 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야.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보며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연상하듯이,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정확한 우주 질서와 삼라만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

묘막측한 인간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찌 그 지으신 이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나?

사랑하는 은아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신뢰하고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뭇까지 우리가 걱정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나? 은아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그래 엄마는 은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아.

은아가 경험한 일 년은 은아가 살아온 이십 여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낯선 얼굴이었지? 평생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가난과 질병, 마약과 학대 받는 아이들... 은아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했었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되지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들을 떠나 오고 지금까지 은아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은, 은아가 아직도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엄마는 생각해.

사랑스러운 은아야! 하나님께서 은아를 그곳에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주님은 은아가 아파하는 그 이상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지? 은아의 아픔은 누가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지닌 은아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은 어떤 것일까?

은아야, 그래서 엄마는 은아의 갈등과 회의를 존중하고 싶구나. 엄마는 은아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거야. 엄마는 은아가 머무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은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은아 곁에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은아야!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딸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아빠가 나온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을 마친 뒤,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일을 해왔지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딸의 갈등과 회의는 앞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토기 그릇처럼 아름답고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빚어져 갈 것임을 믿습니다. 딸의 참 보호자 되신 하나님! 육신의 부모보다 딸을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 홍성사 「희망 온 에어」의 일부를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실었습니다.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3)



이우제 목사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밋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 1:9)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 “환난”, “나라”, “참음”은 요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푸는 압축과일과도 같다. 편의상 환난, 나라, 참음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환난-참음-나라) 논의해 보면 손쉽게 요한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한 눈에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집채만 한 큰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서평을 할 수는 있다는 말이다. 나이가 점점 들어 인생의 황혼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년의 때를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있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밋모 섬에 유배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밋모라는 섬에 정치범으로 수용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요한은 자신을 먼저 “환난”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그 당시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과 성도들이 그것을 거절했던 것 같다. 그 여파로 인하여 지도자 요한은 유배지로 오게 되었고, 교인들은 작고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환난이 찾아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앞에서의 요한의 반응이다. 그것은 바로 참음, 즉 인내로 견딘 것이다. 어떻게 환난에서 참음이 가능했을까? 중간에 있는 나라라는 단어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에 요한은 견디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어 환난, 참음, 나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난

요한은 지금 뜻하지 않았던 환난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요한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유배지에 갇히는 고통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어느 날 박해의 손이 우리에게 찾아와 힘든 현실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난에 처할 때, 우리는 적어도 한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분노하며 실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두려움에 붙들려 냉담한 수궁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죄책감으로의 여행을 하는 것이다. 보통 이런 뜻하지 않은 환난의 손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아차! 싶어 한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오면 죄책감이 발동시키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절망의 나

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은 우리가 특별해서 찾아오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특별한 고통은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이다.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형제요”에 답이 있다. 요한의 고난이 그의 형제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형제들과 “연결되는 생애”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 그는 소위 말해서 고립된 생애가 아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마쳐야 하는 생애가 아니다. 공감대를 만드는 생애가 되는 것이다. 환난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 특별히 남다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특별한사명자”이기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실족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괜찮게 살았다는 분들은 죄책감도 있지만, 그 보다는 분노하며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살았는데 환난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갔는데도 풍랑이 거세게 찾아온 것이다. 나름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주님이 분부하신 자리로 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절규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어려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언제나 풍랑 없

는 항해를 하게 만드는 보장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것으로 풍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은 냉담한 수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냉담한 수궁이라는 이 세 번째 옵션은 어찌면 위의 두 경우들보다 더 수준이 있는 분들이 선택인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항변하면 안 된다는 태도인 것이다. 괜히 하나님께 소리쳤다가 더 밋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는 축복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에 고난이 올수록 더 그 분에게 “예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매우 멋진 신앙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냉담한 수궁의 태도는 매우 “정직성이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으로 둔갑해 버린 억압당한 자의 모습인 것이다. 마틴 부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한 분이 아니다. 우리를 인격이 없는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의 모습은 다르다. 시편기자는 억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항변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본다. 그러한 절규 앞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 앞에 정직한 자세로 나아오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요한도 오늘 본문 지금 10절에서부터 보시면 그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 어떻게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정직한 절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는 계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봉된 책을 열자가 없다고

하자 크게 운다. 막 때를 쓴 것이다. 그 정직한 항변에 위로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해당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하늘 보좌에서만 아니라, 밋모에서도 동일한 자세였을 것이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정직하게 아프다고 소리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그다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참음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위기를 통제 할 수는 없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통제 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환난 앞에서 산산 조각 나지 않을 수 있다. 참음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인내로 버티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요한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요한의 선택한 그것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밋모”에 유배당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피해갈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심령적으로 우리 안에 밋모를 넉넉히 극복할 수는 있다. 광야라는 땅에 거할 수는 있어도 광야가 우리 안에 거하게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음의 미덕을 독려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모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는데 있다. 신앙을 사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곧 참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인내를 강조하는지는 믿음보다 인내를

먼저 말하고 있는 다음 구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 13:10)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그렇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신자는 외적으로 보면 불행한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편안함이 기준이 된다면 사도 요한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편안함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편안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가 밧도 섬에서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지는 않았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언제나 편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평안은 약속하고 있다. 평안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 주시겠다고 하신다. 신자에게 편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사항”이지만, 평안은 “필수사항”인 것이다. 편안해도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평안이 없어도 평안이 있으면, 가난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을 소유한 자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만 있으면, 극심한 어

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택하며 누려야 할 사항인 것이다.


환난에서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

뜻하지 않은 환난이라는 복병이 찾아 올 때,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을 어디에 있는가? 환난과 참음 사이에 있는 단어인 나라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요한은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임재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능히 이러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가 완성되는 최종적인 국면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은 두루마리 책의 인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예수님이시다. 어린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과 함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왼손이라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인 것이다. 두 손의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왼손을 통한 심판은 오른손을 통한 구원을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의 심판을 통하여 성도들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희망은 빛이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을 빛의 충만함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유진 피터슨에 따르면, 예수님에 의해 완성될 하늘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충만한 세계이다. “빛은 시각 경험의 기본이다. 빛을 통해 무엇이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천지 창조 때 맨 처음 한 일은 빛을 만드는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의 첫째 환상은 예수님의 빛의 바다에서 계시는 분, 곧 세상의 빛임을 보여준다. 이제 마지막 창조는 하늘이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하고 따르는 그 빛이 어두움을 정복한다고 믿는다.”¹⁾ 이렇게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희망으로 충만하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차단되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요한은 바로 그 산 증거인 셈이다. 몸을 비록 밧모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으로 충만해 있기에 환난에서 참음이라는 미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 된 우리들의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을 응시하는 것으로 가능해 지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응시한다는 것은 그저 하늘만을 쳐다보는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그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나라인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만 임하는 분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국면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국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적인 국면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

인 예를 밧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경우로 설명해 보자. 사도 요한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다 밧모 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요한의 운명에 대한 믿을만한 주석가인 그랜드 오즈본의 말을 들어보자.

“요한은 단지 짧은 기간 밧모 섬에 있었고, 도미타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인 주후 96년에 네르바 황제의 사면령으로 밧모 섬을 떠나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 받은 것으로 보인다.”²⁾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도요한은 미래에서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을 맛보게 된 것이다. 고난의 시대 속에서 그와 동행하시고, 친히 그 능력의 팔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현재적인 통치와 현존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참음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유진 피터슨,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흥병룡 역 (서울: IVP, 2002), 253.

2) 그랜드 오즈본, *요한계시록*,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115-6.

WORLDVIEW NEWS

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2018년 1차 이사회 및 총회가 2월 20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있었습니다. 2017년 활동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2. 이번 이사회와 총회에서 김성수(고신대) 전 총장과 조성표(경북대) 교수가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위원장에 박동열(서울대)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사고(社告)

지난 2017년 11월호의 특집주제 ‘안보’, 그리고 2018년 1월호의 ‘적폐청산’이 우파에 편중되었다는 취지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정치이슈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의 모색은 이념적 경향성이 드러날 수 있지만, 본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념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으며 이념적 경향성이 다른 형제자매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된 지체이므로, 그들의 의견도 함께 경청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본보 편집위원회는 독자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하나님 진리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균형과 견제의 장치를 견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 템연구단 연구부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이재희 (가천대 교수),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아래의 연락처로 발송해주세요

Mail_editor.worldview@gmail.com H.P_010-2180-0509

월드뷰

WORLDVIEW

구독 신청서

신청정보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구독 및 후원정보

구독금액	<input type="checkbox"/> 5천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구독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연구독료(12개월 분) 일시납부(6만원)		
신청자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0일	
은행	계좌번호				
생년월일	연 락 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아래 내용을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출금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예금주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나이스페이먼츠(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나이스페이먼츠(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동의함 동의안함

CMS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2018년	월	일	예금주	(인)또는 서명
	(인)또는 서명				(인)또는 서명

SAMSUNG



TV를 켜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리더의 공간이 되고



TV를 끄면 영감을 주는 아트 갤러리가 됩니다

공간의 프레임을 바꾸다

THE
FRAME

꺼져 있을 때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모드 · 공간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프레임 디자인